



## 부의 창조: 경건한 선물과 명령 (Wealth Creation: A Godly Gift & Command)

매츠 튜학 (Mats Tunehag)

매츠 튜학은 스웨덴 출신의 강사, 저술가이자 컨설턴트로서 전 세계 절반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다니며 사역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그는 특별히 BAM 확산과 진전에 초점을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인 협력들을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구축하고 있다. 현재, 로잔운동과 세계복음주의 연맹(WEA)에서 BAM 분과 책임을 맡고 있으며, BAM Global의 공동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Remember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은 너에게 부를 생산해 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부정적이고 두 가지는 긍정적이다. 부의 축적은 정죄되지만, 부의 공유는 권장되어 졌다. 그러나 부의 창조가 없다면 나눌 수 있는 부도 없다.

부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부가 창조될 수 있고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부의 창조에 대해 잘못 이해되었고,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거부되기도 했었다. 이와 동일한 것이

부의 창조자들에게 적용이 된다.

부의 창조는 경건한 선물이고 또 명령이다.(신 8:18)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업이나 농업과 같은 비즈니스 기회를 붙잡으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국가는 번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부의 창조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것은 언약에 대해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통한 부의 창조는 기업의 기부활동 넘어서는 것이다. 단순히 이익에만 기여하는 비즈니스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사람과 사회를 위해 다른 종류의 부를 창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재무적인 부분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지적 그리고 영적인 부를 포함한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하는 비즈니스를 소액투자프로그램과 연결한다. 그러나 이런 소액투자프로그램을 통한 부의 창조에 대한 선물이나 부르심은 단순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뛰어넘어 국가의 건설이나 도시전체의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그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라.”(렘 29)

하나님은 번영과 풍성함의 하나님이며, 이것은 창조세계에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2017년 초 스미소니언채널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나는 36만종의 생물종이 있다고 배웠었지만, 전문가들은 백만종 이상이 존재한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2016년 10월, 내가 파나마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18,000종류의 나비가 있다고 들었었다. 나와 내 아내는 싱가포르의 Botanic Garden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난초정원이 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 3만종이 넘는 난초 종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희소성이나 단순성이 아니라 때때로 성경적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일하시는 창조주이시기에 이것은 풍성하게 번성하기 때문인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는 Marketplace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의 창조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기능적인 Marketplace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하나님과 Market Place

예상은 그다지 좋지 않다. 사실상, 그것들은 아주 나쁘고 심지어는 비참하기까지 하다. 도시는 포위를 당했고 모든 것은 패배를 향해 가고 있다. 사람들은 공격 당하고 부상을 입었고 죽기까지도 했고, 집들은 불태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은 외국으로 추방되었다.

최후의 심판의 도시에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마치 전쟁 기간 중에, 전쟁으로 찢겨진 시리아에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나쁜 조언으로 들려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비즈니스를 행함에 있어서 예언적 행동으로 생각된다.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전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도시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회복된 도시의 징표는 움직이는 시장에서 발견되어질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의 장자권을 사용하여 친척으로부터 토지를 샀고, 그 토지의 대금은 증인들 앞에서 공정하게 지불되었고, 토지증서는 후손들을 위해 발급되어 보관이 되었다.

이것은 예언적 구매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되리라 하셨다 하니라.”(렘 32:15)

전쟁이 끝난 후에는 파괴와 절망, 유배와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인데, 그 회복의 징표를 바로 Marketplace의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다.

예레미야는 땅을 구입할 때 예언자적 행동을 했다. 그것에는 금융거래와 소유권증서의 작성과 기록의 보관, 그리고 향후 수년간 잠재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기투자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경제에 대한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지표이고 변혁된 사회, Marketplace에서의 정의의 표징이다. 예레미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사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부가 창조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축제가 있었다.

“회복된 사람들의 일과 즐거움, 잔치와 예배의 삶을 하나로 표현한 것이다. 심고, 수확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춤추고 추수의 즐거움을 그린 장면은 하나님께 대해 충실하게 일하는 즐거움을 표현한다.(Theology of Work Bible Commentary)”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부흥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국가는 사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Marketplace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 이 말씀의 전달자가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 사회의 법률규칙
- 출생신고, 신원확인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몇 가지 방법
- 부동산관련 법률들
- 인정되는 통화
- 경제적 거래를 위한 기능적 제도
-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정직과 투명성
- 공적증서, 기록, 보관
- 구매와 판매에 대한 일들
- 투자수익과 장기적 고려들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

- 위험 감수에 대한 의지
- 비즈니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계약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의 준비
- 수확과 이익을 기뻐하는 것
- 일과 예배의 통합
- 부의 창출과 번영이 도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일터현장(Marketplace)에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한다.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세상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한 장면이다.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사건은 일터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Hobby lobby in the USA’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그린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은 비즈니스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그 분은 단지 ‘주일의 신(神, ‘Sunday Deity’)'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윤과 스프레드시트, 경쟁과 수익에 대해 이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 (More Than a Hobby by David Green, Thomas Nelson, 2005)

### 부의 창출, 비즈니스와 빈곤에 대한 회의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과 사회의 총체적 변혁으로서 부의 창출이 성경적 원칙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존중 되어지고, 주인이 존경받고, 공익을 위하여 부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일터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필자는 2004, 2009, 2014년 및 2017년에 개최된 네 번의 글로벌컨설

테이션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그것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 로잔 BAM Issue그룹

BAM Global Think Tank가 처음으로 로잔의 후원 하에 회의를 주최하였다. BAM이슈그룹은 일과 비즈니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소개하고, 교회와 선교에서의 사업가들의 역할과 세상의 필요에 대한 비즈니스의 잠재적 대응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일 년 동안 활동하였다. 2004년 BAM선언문이 정리되었고, 글의 뒷부분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의 창조자들을 비즈니스속에서 섬기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에 대해 리더십들 속에서 그동안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왔는지 설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내용을 발췌하여 나누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좋은 것들을 창조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의 필요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충족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드러내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역시 따라가야함을 믿는다.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모든 지체들에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제적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드러내시기 위

해 기업인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는 복음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크리스천들은 비즈니스를 통해 총체적 변혁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역에서 빈곤과 실업이 종종 만연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영적,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변혁이라는 네 가지 기본적 목표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증가가 전세계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교회가 비즈니스 자체와 결과를 통해서 전세계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시장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크리스천 사업가 커뮤니티라는 거대하고 그동안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던 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 휘튼 컨설팅

2009년 10월,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에서 “필수적인 소명으로서의 비즈니스”(Business as Integral Calling)에 대한 글로벌 컨설팅이 개최되었고,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교계, 신학자와 경영학, 경제학자들 그리고 선교계의 리더들이 함께 하였다. 다음은 ‘그 선언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 “애가”

우리는 교회와 비즈니스 세계가 그리스도의 소명을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비즈니스를 저평가하고, 의존과 낭비, 불필요한 인간 존엄의 상실로 이어지는 비영리적 접근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했음을 애통해 한다.

### 믿음과 희망의 축복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즈니스 경제활동에 헌신하는 운동이 확장되고 있음을 축복한다.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조하고, 일의 존엄성을 제공하며, 생계문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비즈니스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필수적인 소명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는 개인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위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의하여 제시된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개인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비즈니스는 타락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나라의 핵심가치와의 일치된 비즈니스를 통하여 개인, 공동체 및 사회의 총체적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고 또 더욱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다.

### 아티바이아 컨설테이션

부의 창출과 분배는 2015년 브라질 아티바이아에서 개최된 “번영신학, 가난과 복음”이란 주제로 로잔 국제회의(Lausanne Global Consultation on Prosperity Theology, Poverty and the Gospel)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부의 공유는 선하고 성경적인 것이며, 부의 분배도 역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확인하였다. 또 가난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비즈니스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단순성이라는 개념 또한 도전을 받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으로 다

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아티비아 선언은 꽤 길지만, 여기에서는 부의 창출, 비즈니스와 빈곤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크리스천들은 관대함으로 주고 나누기 위해서만 아니라 빈곤완화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물질적인 이익과 개인 및 공동체의 존엄성을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즈니스를 유지하며, 부의 창출을 위한 대안적이고 윤리적인 방법들의 제공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항상 모든 부와 모든 창조물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세계 시장경제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의 하나가 경제발전이라고 인식하지만, 아직도 복음주의자들은 빈곤문제에 대한 가치가 이끄는 비즈니스를 통한 해결책을 증진시키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어떻게 빈곤퇴치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확립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노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의 창출에 대한 컨설팅이션

부의 창출 이슈를 더 연구하고 부의 창출자의 역할을 토론하기 위해 로잔운동과 BAM Global은 2017년 3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총체적 변혁을 위한 부의 창출의 역할’(The Role of Wealth Creation for Holistic Transformation)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세계 20개국에서 30명의 비즈니스계, 교계, 선교계, 학계의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선언문이 작성이 되었고, 그 회의전과 회의중에 있었던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였으며, 그 내용중 11개의

확언을 인용하려고 한다.

1. 부의 창출은 충만함과 다양함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근거한다.
2. 우리는 공익을 위한 봉사와 결과물들을 창출하는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3. 부의 창출은 성경이 권면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4. 부의 창출자들은 교회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시장에서 봉사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배치되어야 한다.
5. 부의 축적은 옳지 않지만, 부의 공유는 장려되어야 한다. 부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공유할 부도 없기 때문이다.
6. 부를 나눔은 인류보편적 소명이며 자족은 미덕이다. 물질적 청빈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비자발적인 빈곤은 개선되어야 한다.
7. 베푸는 삶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비즈니스를 통한 부의 창출은 부의 분배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넘어선다. 선한 비즈니스는 물질 공급의 수단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며 한 사회의 긍정적 변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8. 비즈니스는 재정적 부를 창출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적, 육체적, 영적인 부 등의 여러가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9. 비즈니스를 통한 부의 창출은 사람과 나라들을 가난으로부터 구해내는 힘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10. 부의 창출은 항상 공익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관심과 함께 추구되어야 하며 비즈니스가 놓인 독특한 문화적 상황에 민감해야 한다.
11. 피조세계의 돌봄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정신과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해법들은 비즈니스를 통한 부의 창출

의 필수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 부의 창출에 대한 이론과 실제

이러한 4번의 국제 회의는 부의 창출, 사업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선명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회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적 자산의 부요함이다.

우리는 또한 전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위한 비즈니스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증거하여 왔다. 인류역사상 가난으로부터 가장 큰 해방이 우리 세대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원조나 개발(즉, 부의 분배)이 아닌, 사업(즉, 부의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지구의 1/3이상이 빈곤에 시달렸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금은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2012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실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포근하고 습한 날씨였다. 스웨덴사람인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 더운 날씨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추운것 그 이상이었다.

나는 작은 무슬림마을의 시장과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그의 집 밖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과자를 먹었다. 그는 열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독실한 무슬림이지만 그를 놀라게 한 일로 기독교인 사업가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인도네시아의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오랜 폭력적인 역사와 더불어 심각한 불신과 긴장이 존재했다.

시장은 그 마을이 매우 가난했었다고 내게 말했다. 쥐들은 매년 40%에 달하는 작물을 먹어 치웠고, 또한 질병을 퍼뜨렸다. 관개사업에 대한 그 어떤 협력도 없었다. 기업가적 정신도 부족했고 변화를 위한 기도를 생각했던 단 한 사람도 없는 듯 보였다.

어느 날 몇몇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시장과 그의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돕기를 원했고, 종교적인 장벽을 해소할 기회를 만들길 원했다.

처음에는 시장이 사양하였다. 자선사업가나 정부관계자들이 아닌 사업가들이 왜 왔을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무슬림이 아닌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한 여성사업가가 적어도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기도가 변화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나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에 동의하였고, 그것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한 전환점이 되었다. 시장은 그들에게 돌아와 달라 초대했고, 그들은 돌아왔다.

기독교인 사업가들 팀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쥐를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기를 시작했다. 또한 그들은 농업생산을 증가시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들은 티토알바(Tyto alba)라고 불리는 쥐를 잡는 올빼미를 발견했지만, 그것들을 번식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고, 연구하며 또 일했다. 나는 들뜬 곳곳에서 새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작물의 손실은 40%에서 2%로 감소하였고 새로 판우물들과 관개사업으로 쌀 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켰다.

나는 시장에게 왜 사업하는 사람이 오기전에 우물을 파고 관개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시장은 기독교인들이 일과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사고방식을 바꾸었고, 항상 기도로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다고 말해 주었다.

시장은 말했다. “이제 우리는 변화에 대해 열려있고, 우리는 행동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의 인도네시아인 비즈니스 친구들은 마을에서 성경적 원칙에 기반한 비즈니스 훈련과정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소규모 제조업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었고, 마케팅과 판매를 개선시키고, 지역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인구 2,320명의 작은 마을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모델마을이 되었다. 국영텔레비전은 어떻게 무슬림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분리된 관계를 회복하고,

변혁적인 사업을 발전시킬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로 그 마을이야기를 취재하고 방송했다. 또한 이 마을은 이제 쥐를 잡는 올빼미 번식 방법에 대해 배우는 국가적인 학습센터가 되었다.

나는 그 마을을 방문하는 동안, 비, 도로포장, 일자리, 오토바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도가 어떻게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다 주었는지 또 다른 간증을 들었다.

우리가 그 마을을 떠날 때 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및 영적 변혁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갖게되는 특권과 이 일에 대한 용기를 얻게 되었다. 나는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결정적인 역할을 중요한 요인이 어떤 것이었나? 기도, 기독교인 사업가들, 올빼미.

### 기도와 부의 창출

이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는 기도가 BAM 주도적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부분이었던지 주목한다.

매년 3월 17일,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 패트릭 축일(St. Patrick's Day)을 기념한다. 그는 그가 노예가 되었던 아일랜드에서, 그 땅과 그사람들의 선교사가 되었던 사람이다. 5세기경, 그는 인신매매의 희생자였다.

성 패트릭의 유명한 기도문을 BAM과 관련된 기도로 변환시켜 소개하려고 한다.(볼드와 이탤릭체로 된 부분이 기도원문이다) 하나님은 비즈니스를 돌보신다. 비즈니스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부를 창조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Christ with me, as I do business for Him and people

나와 함께계신 그리스도, 그분과 사람들을 위해 비즈니스를 할 때

Christ before me, as I plan my business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비즈니스를 계획할 때

Christ behind me, as I review my business

내 뒤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내 비즈니스를 평가할 때

Christ in me; my guiding light in business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비즈니스를 인도하는 빛이 되고

Christ beneath me; He is the foundation

내 아래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기초가 되신다.

Christ above me, He is the owner of my business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내 비즈니스의 주인이시다.

Christ on my right, Christ on my left, He is the Lord of the marketplace

내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 내 왼쪽에 계신 그리스도, 그는 일터현장의 주시다.

Christ when I lie down, and rest from my work

내가 누울 때의 그리스도, 내 일로 부터 쉬시고

Christ when I sit down, in my office chair

내가 앉았을 때의 그리스도, 내 사무실 의자에 계신다.

Christ when I arise, enthusiastic or weary

내가 일어설 때의 그리스도, 열정적이 되시거나 염려하신다.

Christ in the heart of every man who thinks of me, and my business

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 내 비즈니스에서

Christ in the mouth of everyone who speaks of me, and my business

내게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입속에 계신 그리스도, 내 비즈니스에서

Christ in every eye that sees me, my staff, customers, suppliers, and competitors

나를 보는 모든 눈 안의 그리스도, 내 직원, 고객, 공급자, 그리고 경쟁자들

Christ in every ear that hears me? speak about my products and services

나에 대해 듣는 모든 귀 안의 그리스도, 내 상품과 서비스를 이야기할 때